

페펠앤드폭스
코리아(주)

Pepperl+Fuchs의 혁신적인 신클라이언트 솔루션



VisuNet GXP with RM Shell 4.1. The smart solution
for applications in Zone 1 and 21

최종 목표는 Industry 4.0의 모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. 이런 정신으로, Pepperl+Fuchs는 혁신 기술 개발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. 그 하나의 예가 '2017 하노버 산

업박람회(2017 Hannover Messe, 4월 24~28일)'에서 선보인 스마트 신클라이언트 솔루션 RM Shell 4.1 VisuNet RM이다.

〈At a glance〉

- RM Shell 4.1의 VisuNet RM GXP 는 Zone1 및 21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신클라이언트 솔루션 제공
- RM Shell 4.1의 모든 VisuNet 원격 모니터는 제어센터를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.
- 이더넷 통신을 이용하면, RM Shell 4.1의 Visunet RM GXP는 현대의 Industry 4.0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다.

Industry 4.0 솔루션은 Pepperl+Fuchs가 생산 시스템의 정보에 수평적 및 수직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. 생산 프로세스 내에서 통신뿐 아니라 이를 통해 모든 계층 레벨에서 센서로 즉시 액세스할 수 있다. 이는 RM Shell 4.1 펌웨어가 탑재된 원격 모니터 기반의 스마트 신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하노버 메ッセ 무역 박람회에서 시연되었다.

사물인터넷(IoT)은 그 최대 장점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 HMI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. 그것은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이나 MES(클라우드에 위치할 수 있음)과 통신하며, 편리한 제어 및 공정 플랜트 모니터링을 허락한다. VisuNet GXP는 또한 커미셔닝, 컨피규레이션 또는 작업 유지보수를 위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센서에 액세스가 가능하다.

전시회의 실제 하이라이트는 원격 모니터 기반 스마트 신클라이언트의 원격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VisuNet 컨트롤 센터 소프트웨어이다. 이것은 IP 기반 통신으로 중앙 작업장에서 셋업, 컨피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. 엔지니어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위험한 지역이나 클린룸이 있을 필요가 없으며,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.

VisuNet 컨트롤 센터의 원격 관리 메커니즘으로 관리자는 각각의 RM Shell 4.1 스마트 원격 모니터에 접속할 수 있다.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, 사용자는 빠르고 비용-효과적으로 결함을 On-site 시정할 수 있다. 따라서, RM Shell 4.1 기반의 스마트 VisuNet GXP HMI 시스템은 심지어 Zone1 및 Zone 21에서도 프로세스 산업에서 Industry 4.0의 장점을 사용한다.